

E W O N



梨
園



Ewha Woman's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Washington D.C.

4
1973

고문

(가나다 순)

(존칭생략)

Mrs. D. J. Kim

김 성덕

박 경옥

박 원규

오 창희

최 제창

임원

회장	박 원정
부회장	김 정자
서기	임 명자
총무	홍 경주
회계	조 인숙
사업부	구 세창
김 정현	사교부
.....	최 신혜	유 연답
문화부	권 경주
음악부	이 동우
	이 영숙	홍 성자

차 례

동창회 고문, 임원 명단	편집실
차례.....	1
권두언	회장 박 원정
"음악과 무용의 밤"을 보고	오 창희
김 총장으로 부터의 서신	김 옥길 총장
모교소식	편집실
시 "한강의 노래"	이 순영
수상 "웃음"	정 충량
동창회 행사 보고	이 동우
수상 "행복과 불행은 무엇이 다른가?"	이 도실
수상 "과도 기의 어머님들"	무명씨
인간 로이스양과 기적	한 혜경
동창 명단	편집실
편집후기	편집실
광고	33



"이원" 사호를 내면서

이제 "이원" 사호를 막상 내어놓게 되니 흡족스럽다기 보다 미진한
채로 활자화한데 대해서 어쩐지 송구스럽게만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예년
보다 훨씬 늦게 내놓게 된데 대해서 동창 여러분들에게 사과 드리는 바입니다.

아시다 시피 모교 이화는 내용에 있어서나 외관에 있어서 또는 학교건물에
있어서도 많이 충실히 지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1886년 단 한사람으로 시작한
이화가 오늘날 약 3만명이 넘는 졸업생을 내고 있다고 하니 과연 놀라운 업적이라
고 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 많은 이화의 딸들이 국내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모교를 위하여 활약하고 있으니 참으로 마음 든든한일이 아닐수 없읍니다.

더우기 "이화십년발전계획"의 모금운동을 시작하여 국내 도 미국 각처에서 졸업생이
총 동원해서 이일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와싱톤지구 동창회에서도
이곳 매리랜드 대학에서 지난 3월에 "음악과 무용의밤"을 가져 그 모금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때 느낀바는 우리 동창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일할때 이루워
지지 않는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무관심한것 같이 보였던 우리 동창들이
일단 일이생길때 그렇도록 헌신적 열성을내서 강력한 힘과비을 발휘한데 대해서
그저 감사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비록 수만리 이억땅에서 살고 있드라도
이화동창회를 살려서 동창이라는 자매의 정을 잊지않고 사랑의 줄을 이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끝으로 이 "이원" 사호가 나오기까지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봇을 놓으려합니다.

감상문

이화여자대학교 재학부 동창회 주최의

음악과 무용의 밤을 보고

동교 재미 재단이사

오창희

"모교를 사랑하는 발로심"

이화대학의 10년 발전 계획 달성을 위하여 이곳에서의 모교 발전에 성의를 다하는 재미 동창회 회원들의 눈부신 활동을 보고 감격에 이 글을 부치는 것이다.

내가 12살이던 1919년 기미년 3·1 운동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오랜 세월을 두고 왜정의 탄압을 받던 한국인 전체가 죄도 새도 모으게 그 무서운 왜정의 탄압과 총탄에서도 비밀결사와 단결의 보조로 전국 방방곡곡에서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일치단결하여 학정을 반대하고 자유와 독립을 달라고 웨치던 용기는 하늘을 찌렀고 수 없는 생명이 희생되었던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으며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 세월은 흐르고 틀려 해방이 오고 또 독립이 왔건만 나라는 양단이 되고 참다운 자유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마당에서 합하는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느낌을 가질 때 이 글을 아니 부칠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소를 없수이 여기고 대를 생각하지만 적은 것 없이 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대동창회 주최인 음악회가 미국 곳지에서 있게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마자 약 2주간을 전후하여 먼저 같은 와싱톤시에서 서울 여자사범대학교 주최의 춘향전이 열린다 해서 마음이 저울이 염려스러웠다. 미국 사람의 주머니에서도 돈이 나와야 하겠지만 멀리 해외에서 날마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밟 맞추기에 벅찬 우리 교포들의 주머니에서 연거外语연거문 생기는 일에 그 결과를 염려치 않을 수 없었다. 하여간에 이 춘향전을 보기 위해 우리 부부가 표를 사갔이고 당야를 찾으니 입구에서 주는 푸로그램은 보통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천연색의 푸로로 적어도 1불 이상을 주어야 갚을 수 있는 것을 거쳐 밟았다. 그뿐이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나무로 색인 핀을 하나씩 가슴에 달아 주었다. 둘 레에 빈자리는 좀 있었으나

청중이 보기좋게 자리를 잡고 즐거운 춘향전의 상연을 보았다. 이들은 오래전에 하와이에 이민으로 온 우리 거래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고국으로부터 하와이에 왔던길에 미국 본토까지 많은 경비를 쓰며 교포들의 하룻밤을 즐기기도 하였고 미국인 사회에도 잘소개 되었다고본다. 흥행이 끌나고 나오다가 오랫동안 보지못했던 여러 친구들도 만나보았지만 특별히 와싱톤 치구에있는 이대동창회 회장과 여러 회원들을 만났다. 첫마디가 "목사님 우리 큰일났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하는것이였다. 어떻게 격려를 주어야할까 잠시 어리둥절 했으나 나는 "글쎄요, 시간이 많지 않으나 되도록 표를 많이 파십시오" 하고 그 밤은 헤여졌다. 몇일이 지난후 전화와 우편으로 5불짜리표 40장이 보내왔다. 이표를 되도록 한장도 돌려보내지 말고 책임지고 다 팔아답라는 간절한 동창회장의 부탁이였다. 지난간밤 내가 대답한 말에 상당한 효과를 내가 보는구나 생각하였다. 약 삼주일을 두고 듣자니 소문이 굉장하다. 각 동창들, 시내 각상점, 임원들 할것없이 대활동을 전개한 모습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음악회에 출연하는 일행을 동창들이 각각 한 두명씩 맡어 숙식을 담당하는 일, 교통을 보살펴 주는일, 장소알선 하는일, 표를 인쇄하는일, 순서를 결정 인쇄하는일, 포스터를 그리는일 모두 졸업생들이 분담하여 한푼이라도 절약하여 모교발전에 쓰도록 하겠다는 그들의 충성어린 활동을 듣고 내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윽고 음악회 당야가 닥쳐왔다. 불행이라 할까 다행이라 할까 천기예보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올것이라한다. 저녁 8시에 공연이 시작된다는데 오후부터 벌써 부슬부슬 비가 나리기 시작했다. 우리집에서는 약 40 마일이나 되기에 저녁을 일찍 끌내고 공연 장소인 매릴랜드대학 토우쓰 기념예술극장으로 쏟아지는 비를 헤치면서 달려갔다. 비는 계속해서 쏟아지는데 나 자신도 아닌게 아니라 이렇게 날씨가 나쁜데 몇 사람이나 오겠나 하는 염려를 안가질수가 없었다. 그러나 현장에 가까이 갔을 때 차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는 것이였다. 나도 차에서 내려 비를 흠뻑 맞으며 들어가니 회장과 임원들이 반가히 맞아줄때 그 얼굴에 만족함을 보고 저윽이 안심했다. 우리나라 옷을 예쁘게입은 이화의 아가씨들이 아름다운 푸코를 손에 들려주었다. 들으니 이것도 전회장 이 동우씨 내외가 끝까지 인쇄소를 찾어다니며 수고한것이라 한다. 감격하였다. 장내는 벌써 보기좋게 꽉 찼는데 들으니 이 극장의 수용인원은 1,200 명이라한다.

이윽고 시간이되어 막이 열리자 뒤 걸은 막 중앙에는 이화대학교 교기가 투른 바탕에 진 선 미의 세글자를 나타내고 있다. 숙련된 그리고 국내 국외에서 명성이 높은 이 연예인들은 전부가 졸업생들이다. 동창, 동주, 춤 하나하나가 이화의 정기를 나타내고 숨소리를 죽이고 들던 관중들은 갑격한 박수소리를 장내가 터지도록 보내는 것이었다. 음악회는 대성공리에 마치었다고 본다.

일행중에는 신열로 암으면 서도 약을 먹어가며 나온 이, 남편과 어린이를 두고 떠나온 이 동창들의 단합된 일성, 노력, 비 이기적인 희생들이 담북들은 것을 생각할때 이화는 살아있다. 이화가 살았으면 한국도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았다. 이런 삶을 계속하기에는 역시 끈임없는 노력과 자아를 잊은 희생적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다. 성공적인 음악회를 마련한 이화대학 화부지구 동창 여러분과 많은 불편을 일축하고 시간과 물질을 써가며 먼 여행을 해주신 모교 재단상무이사 김영의박사와 공연에 수고해 주신 일행에게 찬사와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속 이 원

내과 전문의 최 관용 629-7588
 726-1327

소아과 전문의 김 택경 635-0880

산부인과 전문의 이 종수 779-6161

김 총장으로 부터의 세선

1973. 4. 18

부 원정에게

와싱톤 동창회 만세!! 하하

고곳에서 날라온 소식들 또 김 영의
선생과 다른 분들의 보고,
만세를 아니
할수 없소이다.

비가 그렇게 왔더는데 아무런 여러분
들의 수고가 컷고 또 수고와 정성을 다
한 만큼 그 결과도 좋은줄 아나이다.

선배들 잘 모시고 서로가 협조하여 모교를
위한일에 최선을 다한 그 성의와 노력에
대해 이곳 여러분을 대신하여 거듭 감사
하고 만세를 보내나이다.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김 옥길

제 3기 "국제학기대학" 성공

제 3기 국제학기대학이 지난 7월
2일부터 8월 10일 까지 본교에서 개최
되었다. 모두 24명인데 남 학생이
11명 여 학생이 13명이였다.

x x

김 옥길 총장님 자당께서 5월2일에
작고 하시고 5월 4일 장례식 거행

x x

기쁜소식 !!

"이대 동창록" 이 정 충량 동창회장
이하 여러분의 수고로 훌륭히 나왔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찾아내려고 노력하신데
대해 우리 동창생들이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87주년을 마지하는 이
동창록은 대단히 두꺼운 책입니다.

지금 두권이 회장에게 보내 왔으니 친구
의 주소를 알고 싶은 분은 회장에게
연락 하십시오.

회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971년 7월에 310,000원을 공제금에 입금한것이

1973년 3월현재 445,320원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공제회 이자가 1972년 9월부터 2부 4리
가 1부 8리로 조금 줄어들었읍니다.

지난번 회신대로 500,000원이 될때까지 늘여서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비오며
동창님들께 안부 전해주시오.

1973년 5월 21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장

호재숙

1973.7. 6.

박 원정 지회장 귀하

늘 모교를 사랑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이화 동창님 가정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5월 31일 중앙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임원이
개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모교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여러분의 성원이 이화
발전에 큰 힘이 되었듯이 이제 창립 90주년을 향해 비약의 발돋음을 하
려는 모교의 동창회가 새로운 임원을 맞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
러 동창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회 장	최 윤애(영문49)
부 회 장	최 혜정(약학49), 조 정자(영문50)
서 기	이 경환(음악37), 이 종숙(국문59)
회 계	이 윤재(문과43), 조 송달(수학58)
총 무	노 분조(생물58)
문화부장	김. 우자(영문50)
사업부장	김 솔희(간호50)
음악부장	윤 연경(음악45)
사고부장	길 희연(체육45)
재정부장	최 연준(미술49)
설외부장	김 허성(의학49)
지역부장	문 장명(법률57) 성 정순(제과49)





한강의노래

이 순영

이것은 안기영씨 작곡에 가사를 부탁받아 썼든 노래로서 일제만년에는 불온한 가사라고 하여 금지 당하였던 것입니다. 요사이 국내 사정을 보아 또 다시 우리 한강의 여신이 이런 노래를 부르거나 않게되나 하는 생각으로 "이원"의 부탁 받은 것을 기회로 옛날것으로 실ти기로 했습니다.

온 빛의 가을 달은 고요히 졸여
흐르는 한강에는 물결이 잠잘때
창백한 물의여신 긴 한숨 쉬며
한달을 우러보며 이같이 말했소

"천년전 옛날엔 이 반도 강산이
평화의 노래소리 내워에 홀렸었네
그러나 오늘날엔 이땅은 변코변해
나 홀로 길게울려 한양을 두루오
반만년 긴긴 역사 내맡은 품에
피끌는 젊은이의 가슴에 있건만
혹독한 비 바람에 시립리여서
황악한 들에 쫓기여 고달피 쉬는구나
흐르고 길게울려 영원한 낙호에
어린이 노래하는 그 나라 찾어서
자유의 기쁜노래 가벼운 춤에
마음껏 즐거함으로 네 혼을 쑤어주렴"



웃음

정 충량

지구 위에 인류가 살기 시작한 아득한
옛날 사람과 사람의 의사를 소통하는
말과 글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과 인간의
사고나 감정 전달의 매개역할을 하던것이
웃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에
인간이 창조될때 웃음의 생리없이 태어
낳더라면 인간의 세계는 전쟁의 연속이요
인류는 지금쯤 멸망하지 않았을까?
정작 멸망하지 않았다 해도 얼마나 멍없는
세상이 되었을까?

꽃이 자연의 웃음이라면 인간의 웃음은
인류의 꽃이라고 생각해보자. 옛날에 꽃
치고 미운 꽃 없고 어린애 치고 미운
어린애 없다고 하였지만, 순진한 아이의
웃음에서 우리는 천사를 본다. 그것이
아무리 남루한 옷을 걸친 거지아이일 망정
우리는 어린이의 웃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아울러 그 천진성을 볼수 있고 시궁창 속
에서 나오거나 길바닥에서 짓밟히는 이름
없는 꽃일망정 아름답지 않은것이 없음을
발견한다. 한나라 한 지역 안에서는 물론
지구 위에 산재한 옛십억의 인간이 각각

만이한 얼굴과 성격과 그리고 나라에
따라 언어와 풍습을 달리 하지만 이들
사이를 보다 친근하게 만드는 지름길도
역시 웃음이라고 생각해본다. 아무리
언어가 통하지 않는 모르는 사회에 가서도
웃음을 먹금고 있으면 상대가 그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증거로 간주한다. 더욱 기 학술
문화교류가 활발하고 자유스러운 오늘의 국
관계에 있어서도 친성과 교양과 순수성이
뒷바침된 웃음은 고귀하고 향그럽고 매력적
이며 인간관계를 원활케하는 매개체가 된다.

판문점 회담 광경을 보면 북한대표들의
조작된 근엄성에는 주의주장을 달리하는 시
는 고사하고 동족이라는 친근감마저 가질수
없을 만치 살벌하다. 이러한 표정이 바로
남북의 거리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전쟁의
공포를 가지게 한다.

아이들과 달리 어른들의 웃음이란 삶
언륜을 더하는 동안 다양해진다. 다시 말
하면 사람들이 굴곡이 심한 인생을 오래
겪는동안 특수한 사람이 아닌 범인의 경우
대개는 순수한 인간성을 잃어가는 반면
하고 노련해진다. 이런 속에서도 상대를
즐겁게 하려는 선의의, 또는 이성을 뇌살
시키는 고쾌적인 웃음을 비롯해서, 비굴,
애원의 뜻을 포함한 웃음 이외에 복수를
한 악의에 찬, 평화를 위장한 웃음이 있
하나 악의를 감춘 웃음도 그 감정을 잘
감추었을때에는 억시 혐상궂은 표정보다

면이다. 그러나 이런 웃음은 쉽게 그속이 만로되는 법이다.

옛날 중국 어느 군주의 후궁이 절세 미인이기는 하나 웃는일이 없었다. 하루는 사형장에서 죄수가 불타죽는 광경을 보고 배시시 웃는 애ه를 처음 본 군주는 그 웃음을 보려고 죄없는 수 많은 백 성을 태워죽여 폭군이 되었지만 이런 죄악의 씨를 뿌리는 악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웃음이 있는가하면 속에 든것이 없는 실없는 웃음은 품위가 없다. 웃음이란 꽃과 달라서 절도를 지나치거나 모자라면 오히려 웃음의 정당한 가치 마저 상실하게 된다. 어린아이처럼 함부꽃같이 웃어도 좋고 어느 후궁같이

이성의 간을 녹이게 배시시 웃는것도 좋다. "모나리자"는 "다빈치"가 영원한 수수께끼인 여인의 미소의 신비성을 그렸지만 정치가도, 관리도, 직장의 상사도 조작된 근엄으로 권위를 앞 세우기보다 순수한 웃음을 짓는데 노력해 보자. 또는 미소지워 보자. 백성도 동료도 자연히 가까워 질수 있을것이다.

철학을 지닌 웃음은 깊은 삶 같고 사랑을 지닌 웃음은 향기롭지만 누구에게나 이런 웃음이 가능한것은 아니다. 적어도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인생을 아는 풍부한 인간성을 지닌 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이런 웃음으로 이땅이 뒤

덮혀진다면 아니 세계의 모든 인류가 이러한 웃음을 지닐수 있다면 세계는 사회는 훨씬 높아지고 평화로워 질것이다. 요새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꾸만 사랑을 지닌 웃음이 사라져 가는것 같다.

부부사이에 부모와 자녀사이에,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 그리고 사회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웃음의 교환이 없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칠어질것인가? 상상만하여도 우울해진다. 그러나 메마른 각박한 환경에서도 젊은 이들의 퇴없는 웃음속에 시름을 잊고 책상위에 놓인 꽃을 바라보는 나는 인생의 꽃 웃음을 생각해본다.

이원 사호를 위한 찬조금

김 전현	10.00
박 관부	25.00
김 순학	10.00
이 순영	10.00
박 원정	10.00
임 명자	10.00
홍 경주	10.00
최 신혜	10.00
이 동우	10.00
구 세창	10.00
김 정자	10.00
조 인숙	10.00
홍 성자	5.00

동창회행사보고

1972. 5. 20

동창 친목회로 죄 의숙 회원댁에서 몽이다.

7. 14

김 옥길 총장 환영회의 몽임을 "서울궁"에서 갖임.
화부지구의 이화가족 근 칠십명이 한자리에 몽인 가운데
최근의 모교소식의 이모저모, 특히 동창회 기념관의
개관등 모교의 여러 발전상을 총장께서 전해 주시다.

7. 17

총장을 모신 임원 간담회가 이 동우씨 사가에서 있었음.

10. 19

전 서기 김 정자 회원댁에서 총장님을 모시고 가족찾기
적십자 서울 회의에서 있었던 김 총장의 연설내용과
그 전후 사연을 들음.

11. 19

정기총회로 전 서기 이 혜순씨 댁에서 몽여 임원 개선을
하였음. 총회후에 고국 남북 적십자 회답시 이산가족
대표로 행한 김 옥길 총장의 연설 한토막을 녹음으로 듣다.

1973. 3. 16

"음악과 무용의 밤"이 매리랜드대학 예술관에서 있었음.
우천의 기후에도 불고하고 약 1,200석의 장내를 관중으로
거의 빽빽히 메운 가운데 뜻있고 성공적인 예술제를
이루었다.

행복과 불행은 무엇이 다른가?

이 도실

나는 전에 나에게 불행한 일이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불행한 사람을 보면 내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여기며 감사를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철이 들어가는 것인지, 지금은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온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옛날 여자들은 부자집 딸로 빼어나서 호강하여 자라고 부자집에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면 아주 행복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었을까? 지금도 어떤이는 그동안 자기에게 이팅타할 불행한 일이 없었으니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기의 행복을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말 불행이 없는 것만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나는 생각해 본다.

나는 생각할때에 행복이나 불행이나 똑같이 인생에게 풍부한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한다. 불행한 일을 당할때 남을 이해할수 있고 겸손해지지 않는가? 남의 불행을 이해하고 겸손해 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느낌인가! 또 한편 불행했을때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나아가서 남에게까지 인간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동정과 이해와 사랑과 도움을 받지 않는가? 불행한 일을 당할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인간미를 서로 주고 받지 않는가? 내 자신의 아름다움을 느끼는것도 행복한 일이 거니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인간미를 내가 느낄때에 그것은 더욱 보람 있는 행복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찬미한다.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칭찬을 받고 자란사람 일수록 자지에게 불행이 온다는 것을 믿을수 없는 수치로 여기며 자존심을 상하면서 괴로워 하는 이도 있지 않은가? 인간은 평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가문이나 재물이나 학벌이나 재주 때문에 교안할것도 자존심을 높이 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자기에게는 아직까지 이렇타할 불행한 일이 없었다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과연 자랑할수 있을까?

행복이나 불행이나 거기에는 똑같은 깊은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의미를 느낄때 행복이나 불행이나 아름다운 삶의 과정에 하나이다. 오로지 다른것이 있다면 행복은 쉽게 이해가 되고 불행은 이해하기에 시간이 걸리는것 뿐이 아닐까



과도 기의 어머님들



무영씨

연로하신 시어머님을 꾸곡 도상에 올려 드리고 돌아서면서 마음 깊이 느낀것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같이 비행장에서 쓰린 마음으로 무거운 발길을 돌렸어야 되었을까? 물론 가족끼리 헤어지는 때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맛보는 언짢은 심정을 인제 새삼 느껴본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한국의 전통과 관념 속에서 살아온 때문에 이별 그 자체가 주는 슬픔 이외에 돌아서는 발 걸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이유가 있는것 같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있는 자녀들과 같이 살기위해서 혹은 방문 하려고 오시는 부모들의 수가 눈에띄게 늘고 있는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자리 잡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기본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동안 헤어져 있어 아쉬웠던 마음이 풀린 다음에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거울 보다는 불만으로 차기 시작 하는것을 볼수있다. 첫째로 여행의 부자유 두째로 생활방법과 사고방식의 차이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심리 때문인것 같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장기간을 견디어 내시기에는 답답한 날이 너무 많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한국여성들은 시부모와 자녀의 생을 살아 주느라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볼 여지가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늘 으신 후에는 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그분들의 생을 살아 줄것을 의식 혹은 무의식 중에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윗 세대의 삶까지 충족시켜 드리며 살아 가도록 되어 있지를 않다. 그러나 우리 어머님들은 한국의 구 가족제도에서 일생을 통해 윗 세대와 아래 세대를 위해 바치기만 하고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그 댓가를 받지 못하시니 과도기에 걸쳐 있으면서 희생을 당하시는 분들이다. 물론 그분들의 세대가 아니면 우리 세대 이었을 것이니 다만 시간의 문제이다. 이런 현상은 한 국가가 어떠한 정치, 경제 채제를 가졌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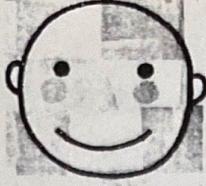
간에 사회가 산업 근대화 됨에 따라 자연히 오게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을 개인 부모들 만이 당하는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가 하루 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이차 세계대전 이후 서서히 세대전 이후 우리에게 닥아온 것인 까닭에 지금쯤은 어머님들도 체념하고 현실에 대처하고 적응을 다소는 하셨겠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하필 왜 우리 어머님 세대에서 당하셔야 하는지 한숨 지어진다.

TOKYO SUKIYAKI

1736 CONNECTICUT AVENUE, WASHINGTON, D. C.
HObart 2-7891

FREE DINNER PARKING
6:00 PM TO MIDNIGHT
AT UNIVERSAL BLDG. GARAGE

한국 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영숙 이영숙



인간 로이스 양과 기적

한 헤경

오늘같이 과학만능 시대에 있어 기적이란 말은 그다지 신통하게 들리기 커녕 오히려 비난을 초래하기 쉽고 무식층에서 하는 지나가는 이야기라고 할것이 분명 함을 안다.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 인생들이 살다갔고 또 계속 여기 있으며 또 올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소리다. 단지 하늘의 뜻과 그하시는 일을 몰라서 모르고 또 인간자체가 제딴에는 썩 잘나서 모르는것 뿐인줄안다. 그러면 이같이 몰라 모르고 잘라모른다는 말은 논리상 맞지않는 말 같지만 하늘의 일은 하늘의 일대로 그 어느 시기이건 계속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되고 또 그것을 느낄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음이여 !

오늘도 우리부엌 조반상 앞에 아주 ~~안~~아 매일 되풀이 하는 미쓰로이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노라니 문득 그가 저 검은운명의 신이 이지의 막바지로 풀고 가던 최후 순간의 장면이 눈에 선듯 떠 오른다. 그는 두달동안 이병원 저병원 또 양노원으로 줄곳 음기면서 식음전폐 혼수상태로 이상한 병마 와 투쟁끝에 최후 선고를 받고 그시간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의사도 사망진단 쓰기 위할때에나 부르라는 그시간을 기다릴 뿐이면서 ... 이렇듯 사신이 넘실거리는 순간 인재 인력이 아랑곳 없고 오직 신이 원하시는 뜻을 묵묵히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이 할머니의 굳어진 목이며 굴리지 못하는 동공 차자드는 숨결을 지켜볼때 상식적으로 임종이 됐음을 알고 가슴 속으론 눈물이 터것든것이다. 그리고 이분이 부탁했던 여러가지 말을 돼 새겨보며 인생의 가치를 더듬었던 것이 아닌가 .

"내가 원하는것 ----- 내 몸에 온기가 식어질때 1. 두 눈은 눈 은행에 기부할 것 2. 내장 어느기관 이먼지 성한부분은 의료연구실에 보내서 실험용으로 제공할 것 3. 쓸때없는 부분만은 불에 살타 연기는 구름과함께 어데로가고 ? 타타 납은 재는 김 목사 손에들려 내 고향 아이오아주 가족묘지에 묻어줄것. 내 아파트에 있는 일용 가구와 책들은 그 누구 누구에게 줄것" 등등 이였다. 나는 이 분의 깨져가는 맥박을 짚어보며 그가 빛나게 살았던 그의 생, 보통 천사람 만사람의 삶이 어찌 이 고독한 미혼의 선교사 만큼 살수가 있으랴 ? 그가 성 했을때 이 지구 저쪽에까지 사랑의 씨를 뿌려 뜻깊이 무성했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었고 기독적인

사랑의 확신을 끗 가슴에 품아놓고 이젠 그여히 가시나 보오. 그 빛나던 삶을 하나님께서 꾸히 보시고 싶라 하심이 아니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 인간 욕심으론 이 고된 자리에서 이분을 일으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덤속에서 썩던 나사로를 살피셨던 주님의 눈물, 그 자비와 공을 오늘 이 할머니에게도 베프소서 하며 기도했을 뿐이다. 의사들 불렀으나 사망진단 하기위해서나 갈머이니 그때 불르라는 말을 간호원이 전한다. 마음은 조급하고 촛불은 꺼져가며 기름은 자자든다. 우리는 병실에 더 오래 기다릴수 없는 사정이타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아직 더운 얼굴에 키스를 하고 병실을 나오니 앞이 보이지 않았다. 간호원에게 전화번호를 주며 무슨일이 있던지 곳 알려 달라고 부탁하고 어두운 밤 4시간을 차를 몰아 집에오니 잠이 올리 만무하다. 전화가 오기만 하면 곳 비행기로 병원으로 가야한다. 나는 곰곰 인간의 생을 자꾸 더듬어 본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본능대로 자기욕망으로 살다 간다면 무엇이 이 땅에 유익할것인가? 로이스 할머니는 죽어서 까지라도 제몸을 불살로 기전 쓸것을 써 달라는 이 정신은 그가 건강했었을때 남이 모르게 80년동안 숨은자선을 열열히 했던 근거에서 나오는 힘이다. 그가 1920년 20대의 묘령으로 오하이오 웨슬리안 대학을 졸업하고 태평양을 건너 평양역에 내리던 그날 부터 그의 몸은 불살렸던 것이다. 정의학교에서 교연을 잡기까지 그 어려운 이방인의 언어를 배우던 고난, 보건체육을 전공한 이가 한국 옛날 안방여성에게 체육을 가르치는것은 고사하고 매일 8시간 영어 칠판만 두드리자니 어린나이에 따분했던 그 시간, 그는 체육뿐 아니라 침공과기예에도 능난한 재간이 있어 디자인을 하는법을 한국 여학생들에게 가르치며 이것으로 돈 벌이까지 해서 학비를 벌어쓸 기회도 얻어 주었던것이다. 안방에 박혔던 규수들에게 자급 자족하는 정사과함께 물심으로 많은 사랑을 기우려 인재양성의 손을 펼 것은 20대 부터 80세까지 줄곳 그의 생의 목표였다. 와싱턴 시 작은 아파트에서 늘은 고독 을 달랠는 길도 오직 납을돕고 사는데만 있었다. 그가 어렸을때 8남매 중에서 가운데로 태어난 탓으로 별로 부유하지 못한 가산에서 8남매 옷이며 신을 사 신을 수가 없어서 어려서부터 옷은 제 손으로 지어 입었으나 신은 돌려가며 신었다한다. 작은신 촌신 마구 신어야 되므로 유달리 발모양이 험해갔다. 발톱을 깎기가 곤란해서 전문의사에게 가서 깎게되어 10불씩을 내고 깎았다면서 발을 보여준다. 중서부 혹한이 심한 아이오아주에서 두꺼운 의류한벌 못 입어보고

자란 그는 한국 평양에서 가난에 시달린 한국 여성을 볼 때 자기 뼈마리까지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24년 로이스 양은 평양 사투리를 등뒤에 남기고 서울
이화로---- 교정에서 그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발휘할 시기가 왔다. 각 학교 연합
경기를 총 지휘하는 역할도 했고 그래서 한국 역사 최초의 여성경기 코-취로
등장한 인물이 에디스 엠. 로이스 양이었다. 그는 경기장에서 썼던 용어가 범벅
식 이었다면서 웃는다. 웃, 막아, 패스 이런 용어로 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각 농연의 체육을 가르치며 남 모르는 자비의 손길과 사랑의 써를 뿌리며 살았던
그의 고상한 인품 깔끔하면서도 따뜻한 마음 남을 더 애끼며 보살펴주는 정률은
선교사직을 갖았다는 직업의식을 초월한 기독교의 사랑이리라. 그는 한국에서만
한인을 위해 살지 않았다. 미국에 돌아와 15년간 뉴욕생활에서도 수많은 한국
학생들의 어버이로, 학생뿐 아니라 많은 한국인에게 자애의 손길을 뻗었다.

못 한인의 경제난 고독난 기타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상담역과 해결책, 잘 살도록
길을 짜주며 고생을 씻어준 우리 한인의 은인이다. 그후 텍사스 생활 8년 동안
에도 그곳에 산재한 한인들의 따뜻한 어머니역을 했었다. 배가 고파도 할머니를
찾아갔고 향수에 올때도 이분 걸으로 갔던 것이다. 학비가 떨어지면 물론 이분의
주머니는 늘 빈 털털이가 되게 마련이다. 이렇듯 한 옷을 기워입고 음식을 절약해
자시면서도 내 뿐만不是 사랑의 얼은 못 혼을 매웠던 것이다. 그후 와싱턴 시 월터티드
육군병원 의학연구 문헌주필로 7년간 이 근방에 사는 동안 우리 한인교회 건축모금
운동을 위해 총 정력과 시간을 드려 남 모르게 문헌으로 봉사 한 것은 아는 이가
별로 없으리라. 그는 매일 점심을 싸들고 버스에 올라 빈 교회건물에 들어가서
온 종일 바자를 치며 전국에 있는 선교기관과 개인들에게 편지를 냈던 것이다.
자기의 시간과 노동의 댓가를 바짜지도 않았고 또 언제나 남이 모르게 일하기를
즐기는 인물이다. 이는 숨어서 살며 숨어 일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도 없고 아는 이도
없다. 오직 하늘만을 목표로 하늘의 영광을 위함이니 자신을 내 세울 수 있으랴!

1928년 그가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학교행정학을 마치고 다시 이화로 돌아가신
후에 업적도 매우 커졌다. 그는 몇 해 후 달리 뜻을 품고 평안북도 벽촌 양면에서
광산사무소의 서기로 일했다. 한국 농촌과 산악지대의 가난상을 목격 했을 때 그는
목이 메었다. 이 가난상을 어찌 도울 수 있으며 이 궁지에서 소생할길이 무었이냐는
것에 큰 뜻을 두게 되었다. 이차대전 직전 일본의 한국정책이 험악해 졌을 때

서양인은 물론 미국 선교사들을 한국에서 추방할 무렵 로이스 양도 함께 미국 뉴욕에 떨어졌다. 대전이 무르익던 1941년 미국 진주만 폭격과 함께 일본은 국도로 발악했던 것이다. 이때 기회는 왔다고 생각했었다. 그 당시 유학생으로 왔던 김 성덕씨, 실업가 유 일한씨와 합력해서 한국경제 다이제스트란 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다. 김 성덕씨는 면집인으로 로이스 양은 주필로 주 아불구하고 심혈을 쏟았었다. 한국에 대한 참고재료와 사진등을 구해다가 선전하고 격앙했던 것이다. 그때는 일본 식민지로서 이름었던 한국 인지라 모르는 미국 대중에게 독립국가로 설수 있는 우리의 입장을 선보했던 것이다. 때가오면 우리 한국은 반드시 독립해야 된다는 이 선전이야 말로 언론계에 투약이 된셈이었다. 이려는 동안 잡지 경제난은 물론 두 사람의 시간과 노력은 문자 그대로 희생 봉사였던 것이다. 1945년 대전이 끝나자 경제잡지 요원 두 사람은 즉각 미 육군에 소속되어 서울로 향했다.

이렇듯 일상을 바쳐 진심으로 한국을 사랑하며 한인을 돋던 우리의 술은 은인 로이스 할머니가 그만 병들어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때 — 주여 ! 당신은 각사람의 그 한일을 아시오니 영광의 연류관을 친히세워 주실때가 온것을 믿고 기다리며 훌쩍거리던 두달전의 광경과 그 심정과 오늘 우리들이 밤상을 가운데 놓고 서로 처다보는 이 온데 갑격에 다시 안개가 끼워진다.

저 부드럽고 윤택한 흰 머리, 별에 약간익은 분홍빛 안색, 안경테 안으로 미소짓는 푸른눈의 엉롱함, 모두가 80 고령의 아름다움과 평안을 지닌 천사의 미와도 같다. 이는 결코 외양간의 아름다움만은 아니다. 그 속에서 용솟음치는 영혼의 미 그 빛났던 과거 그 생의 흐름이 오늘도 그 속에는 철철 흐르고 있다. 영혼의 삼정신의 미 만이 죽어도 영원히 남음이여 ! 나는 매일 할머니 손을 잡고 산보하는 기쁨 그를 돋는 즐거움으로 벅찼다. 오늘도 목욕후 턱밑에 깔깔한 몇모락기 수염을 뽑아 탈하면서 미소짓는 아름다움, 또 사람 웃기는 피양사투리 타면서 " 데일 도흔 먼도부인 하고 먼도를 하니끼니 수태 옥 봤시요 "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즐기였다 .